

**2021년 10월 26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26일(화)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0. 25(월)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담당과장	박성준 과장 (044-203-5750)	담당자	김파라 서기관(044-203-5751) 조부임 사무관(044-203-5754)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타결,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FTA) 정식 서명**  
**-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구축 -**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1.10.26.(화) 화상으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선언식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개최하였음

**① 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 선언식(화상) 개요**

- (일시/장소) 10.26.(화) 09:00 / 소공동 롯데호텔
- (참석자) 우리측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필측 라몬 로페즈 통상산업부 장관 등
- (내용) 협상 타결 선언 및 공동 선언문 서명

**②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화상) 개요**

- (일시/장소) 10.26.(화) 10:00 / 소공동 롯데호텔
- (참석자) 우리측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캄측 판 소라삭 상무부 장관 등
- (내용) FTA 협정문 서명

- 2017년 신남방정책 선언 이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0.11월 서명), 인도네시아(‘20.12월 서명) 등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등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의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음

- \* 아세안 4대 교역 대상국과의 양자 FTA 체결 현황('20년 기준):  
(1위) 베트남('15년 발효) (2위) 싱가포르('06년 발효) (3위) 말련('19년 협상개시) (4위) 인니('20년 서명)

## **1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 높은 수준의 개방 합의, 우리는 94.8%, 필리핀은 96.5% 관세 철폐
- ▲ 필리핀 內 승용차·친환경차 등 품목, 경쟁국보다 우위 확보
- ▲ 농산물은 기존 FTA 수준에서 추가개방 최소화(자유화율 72.2%)
- ▲ 백신·기후변화(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포함)·문화 등 분야 포함,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

### **【 한-필리핀 FTA 추진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21.10.26.(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음
  - '19.4월 한-필 통상장관간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한-필 양자 FTA 추진 합의 후,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19.6월 협상을 개시하였고,
  - 이후 2년 4개월간 5차례 공식협상\*, 수석대표 및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1.10.26일에 상품, 원산지, 통관, 경쟁, 경제협력 등 12개 챕터 및 시장개방에 합의하여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함
- \* (1차) '19.6.4~5 (2차) '19.7.15~17 (3차) '19.8.12~14 (4차) '19.9.10~13 (5차) '20.1.29~31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필리핀 FTA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양국이 함께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 아울러 “백신,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해외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산업인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희소금속, 스마트팜,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하였음

## 【 한-필리핀 FTA 의의 및 주요내용】

### ① 아세안 주요국가인 필리핀과 양자 FTA 타결로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마무리

□ '17.11월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신남방 FTA 네트워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한-필리핀 FTA 타결로 아세안 주요국가와 양자 FTA를 구축함

\* 싱가포르('06년 발효), 베트남('15년 발효), 인도네시아('20.12월 서명), 캄보디아('21.2월 타결)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다섯 번째 양자 FTA

○ '19.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계기 한-필 양국 정상간 회담에서 추후 협상을 지속해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타결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음

○ 또한, 한국과 필리핀의 양자 FTA는 양국이 모두 참여한 다자 체제의 RCEP 협정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인구 약 1억 1천만 명(세계 13위), 민간소비 비중이 GDP 대비 70% 선으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는 필리핀과 FTA 타결로 아세안 내 시장접근을 공고화하였음

\* 필리핀은 13~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의 1/3을 차지

### ② 높은 수준의 개방 → 승용차·친환경차 등 품목, 경쟁국보다 우위 확보 농산물은 기존 FTA 수준에서 추가 개방 최소화(자유화율 72.2%)

□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한-필리핀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하였음

\* 품목수 기준 : (한) 94.8% (필) 96.5% / 수입액 기준 : (한) 97.0% (필) 97.6%

○ 한-아세안 FTA('07)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철폐 했으나, 금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p, 수입액의 4.9%p를 추가 개방함

□ (주요품목)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양허 제외)되었던 자동차(관세율 5%), 자동차 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을 크게 개선함

○ 對필리핀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승용차(5%) 관세 즉시철폐뿐 아니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5%) 5년 관세 철폐하여 주요 자동차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경쟁국보다 불리했던 수출 여건 대폭 개선\*

\* 승용차(가솔린/디젤) 등 핵심품목의 관세 철폐로 필리핀 자동차 시장內 경쟁 우위 확보

○ 자동차 부품(3~30%) 최대 5년 관세 철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15년 관세 철폐 등 중소기업 생산 품목의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또한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조성함

□ (민감품목 보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 FTA(한-아세안 FTA,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하였음

○ 필측의 바나나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하여,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

\*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10년간 운영)

### ③ 백신·기후변화(NDCs 포함)·문화 등 분야 포함,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마련

□ 양국은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별도로 도입하여 경제성장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협력의 원칙·범위·형태·분야, 협력이행위 설치,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의 체결 등 양측이 상호호혜적 관계 속에서 경제기술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
-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생태계, 문화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재산 등 양측간 협력이 유망할 전략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
  - \* 정보교환, 모범사례 공유, 전문가교류, 비즈니스포럼, 공동연구·개발 등
- 특히, 양국은 최근 주요 국제적 관심사항이며 양측 주요 관심사항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및 팬데믹, 백신, 기후변화 협력을 규정함
  - \*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 백신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최초 사례로, 백신은 백신 제조·원부자재공급, 공동개발을 위한 R&D 협력, 기후변화는 NDCs 감축, 이전, 공공·민간 프로젝트 증진 협력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협력 규정의 도입으로 양국간 기존에 진행해오고 있는 FTA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산업기술 개발 협력 등에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였음

#### ④ 우리 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에 편의성을 제고하는 제도 마련

- (원산지·통관) 업계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 (PSR)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친화적으로 원산지증명 절차 개선함
- 그간 일부 품목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의 부재가 기업들에게 애로로 작용한 바, 금번에 쉰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 (PSR)을 작성\*함으로써 한-아세안 FTA 대비 업계 편의성을 제고함
  - \* 한-아세안 FTA는 전체 5,387개 품목 중 1,437개 품목(약 27%)만 PSR이 존재하여 기업들이 對아세안 수출시 원산지 기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애로

- 한-아세안 FTA 대비 의류, 가공커피·소시지,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기업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함
- 원산지증명은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하되,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도 발효 즉시 도입하고,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을 순차적으로 (10년내) 도입하는 등 기업친화적으로 원산지증명 절차를 개선함
- 물품의 수입시점에 특혜관세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수입 1년 이내라면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FTA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경쟁)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쟁 챕터를 신설하여 양국간 공정 경쟁 촉진 및 경쟁법 집행 협력 토대를 마련함
  - 경쟁법 집행시 절차적 공정성·방어권 보장,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을 명시하여 우리 현지 기업들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함
  - 주요 경쟁법 집행 사건에 대한 통보, 정보교환 협력을 규정하여 카르텔 등 국제적 반경쟁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

## 【향후 계획】

- 양측은 법률검독 및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합의함

## ②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 ▲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메콩국가와 첫번째 FTA로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
- ▲ 한-아세안 FTA/RCEP 대비 화물자동차·섬유·기계·딸기·배 등 추가개선
- ▲ 최빈개도국과 FTA로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토대 마련

### 【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개요】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10.26.(화) 캄보디아 상무부 **판 소라삭 (Pan Sorasak) 장관**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하였음
  - 베트남,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지역의 허브이며, 성장잠재력이 큰 캄보디아\*와의 FTA로 메콩 지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으로의 시장접근 확대, 밸류체인 강화가 기대됨
    - \* 캄보디아는 지난 10년간 연 7%대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며(단, '20년은 코로나19로 -2% 성장), 35세 이하 인구 약 65%로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한-캄보디아 FTA는 '19.3월 문재인 대통령 캄보디아 방문시 양국 정상간 합의로 추진되었으며, '19.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공동연구 개시를 선언하였음
  - '20.7월 협상 개시후 4차례 협상을 거쳐 '21.2월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여,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1.10.26일에 서명식을 개최하게 되었음
- 여한구 본부장은 “오늘 한-캄보디아 FTA 서명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번영을 위해 추진한 신남방정책과, 캄보디아의 자유무역과 산업발전을 통해 국가경제를 도약시키려는 의지가 모인 결과”라고 평가하고,



- 한-캄보디아 FTA는 “양국을 이어주는 튼튼한 경제 고속도로이며, 앞으로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이 고속도로를 통해 자유롭게 왕래하며 더 많은 교역,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협력을 이루어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 한-캄보디아 FTA 의의 및 주요내용】

### ①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메콩국가와 첫번째 FTA로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

- 한-캄보디아 FTA는 신남방정책 발표(17.11월) 이후 RCEP(20.11월 서명), 인도네시아(20.12월 서명)에 이어 메콩국가와 체결하는 첫번째 FTA임
  - 화물자동차, 섬유, 기계 등 관세철폐 및 시장개방 확대로 캄보디아의 산업발전과 연계한 교역 확대, 벨류체인 강화\*가 기대
    - \* 섬유: 캄측은 편직물(7%), 우리측은 의류(5%)의 관세를 철폐, 상호교역 증대
  - 코로나19 이후 역내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메콩지역에의 신규 생산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및 메콩지역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평가됨
    - \* '20.2월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로 현대·기아 자동차의 생산 중단 위기 시, 캄보디아에서 생산한 부품(와이어링 하네스) 구입 등으로 생산 재개

### ② 한-아세안 FTA/RCEP 대비 화물자동차·섬유·기계·딸기·배 등 추가개선

- RCEP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
  - 한-아세안 FTA('07)와 RCEP에서 캄보디아는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철폐 했으나, 금번 양자 FTA를 통해 전체 품목의 0.8%p, 수입액의 19.8%p(1.1억불 규모)를 추가 개선
    - \* 다만, 캄보디아의 최빈개도국(LDC) 지위 반영

- (주요품목) 한-캄 FTA를 통해 우리의 對캄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기계, 섬유 및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 수출 여건 개선
  - 對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에 대한 관세가 발효후 즉시 철폐되며, 산업발전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설중장비(15%,10년), 산업기계(15%,10년) 등에 대해 관세철폐
  - 캄측의 딸기·배(7%)에 대한 즉시철폐 및 소주(15%, 10년), 간장(15%, 10년)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우리 주요 농수산물 수출 기반 조성
  - 양국간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섬유 관련, 캄측은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우리측은 편직제의류(5%)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공급망 강화
- (민감품목 보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既체결 FTA(RCEP, 한-베 FTA, 한-인니 CEPA 등) 범위 내 양허로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
  - \* 과실류(망고 등), 곡실류(쌀, 옥수수 등), 새우류 등 상당수 추가 개방 없이 기체결 FTA 양허 수준을 유지, RCEP 대비 추가 개방은 기타 당류(5%, 16만불)를 제외하고 對캄 수입 미미한 농산물

### ③ 최빈개도국과 FTA로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토대 마련

- (협력) 한-캄보디아 FTA 내 협력 협정문에 합의하여 정보통신·전자상거래·농업 등 분야에서 기술·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활동을 통하여 우리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공공투자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 및 투자 가능
  - \* 산업발전정책(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IDP 2015-2025)을 통해 의류, 신발, 건설, 식품가공에 편중된 자국 산업구조를 다각화 추진중
  - 캄보디아는 '19.8월 공공투자 계획(Public Investment Program 3 year-Rolling)을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을 통해 '20~'22년 동안 600개 프로젝트 추진예정

- 양국은 또한 우리의 既체결 FTA 중 최초로 팬데믹 상황 시 협력을 합의하여, 팬데믹 상황에도 양국간 필수 물자·인력의 이동 등을 통해 경제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④ 섬유 원산지 및 통관절차 개선으로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 (섬유 원산지 개선) 한-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하되, 주요 관심 품목 및 업계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원산지 기준 개선
  - 의류 품목은 수출국에서 재단·봉제 모두를 수행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삭제하여 기업의 수출을 용이하게 함
    - \* '재단·봉제'는 현재 우리 업계가 거의 수행하지 않는 공정
- (통관) 캄보디아가 개도국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의 통관편의와 권리보장을 위한 통관환경 조성\*
  - \* 통관 협정문 신설 → 한-아세안 FTA에 통관관련 협정문이 없는 점을 보완
  -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에 대해 수출자 등이 수입 전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 도입

#### 【향후 계획】

-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여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 \*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사실을 상호 상대국 교환 후 60일째 발효

### ③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 FTA 네트워크 구축


▲ RCEP('20.11월 서명), 인도네시아('20.12월 서명), 캄보디아(금일 서명), 필리핀(금일 타결) 등과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 구축

□ '17.11월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신남방 FTA 네트워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1월 RCEP 서명, '20.12월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에 이어 한-캄보디아 FTA 서명, 한-필리핀 FTA 타결로 아세안 주요국가와 다자·양자 FTA를 마무리함

- 이로써, 우리는 이러한 양자 FTA를 통해 아세안 최대 거대시장인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시장을 공고히 하고, 메콩국가와의 양자 FTA 교두보를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교역의 78.1%를 차지하는 시장과 FTA를 완성하였음
- 이들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FTA는 아세안 국가가 모두 참여한 다자체제의 RCEP 협상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됨

#### <아세안 국가와 양자 FTA 현황>

국가	FTA 현황			의의	인구 (만명)	교역 ('20년, 백만불)	우리 투자 ('20년, 백만불)	
	타결	서명	발효					
아 세 안	싱가포르	2004.11	2005.08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	589	18,271	5,674
	베트남	2014.12	2015.05	2015.12	우리 제4위 투자대상국('20년)	9,816	69,122	2,956
	인도네시아	2019.11	2020.12		인구2.7억명(세계 4위) 거대시장 확보	27,636	13,911	1,166
	캄보디아	2021.02	2021.10		메콩지역 허브시장 확보	1,694	885	985
	필리핀	2021.10			소비 잠재력 높은(GDP대비 70%) 시장 확보	11,104	10,213	139
	소계 아세안 10개국						112,402	10,920
RCEP	2019.11	2020.1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483,973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김파라 서기관(☎ 044-203-5751), 조부임 사무관(☎ 044-203-57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한-필리핀 FTA 추진경과

- '18.6월 한-필 정상회담시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차원에서 '양국 교역/투자 확대 추진'에 합의
- '19.4.17, 한-필 통상장관간 '19년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한-필 양자 FTA 추진 합의
- '19.4~5월 통상절차법 등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한-필 FTA 추진계획 수립,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 완료
- '19.6.3, 한-필 통상장관 간 한-필리핀 FTA 협상 개시 선언
  - \* (우리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필측)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통상산업부 장관
- '19.6.4~5, 한-필리핀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 '19.7.15~17, 한-필리핀 F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마닐라)
- '19.8.12~14, 한-필리핀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부산)
- '19.9.10~13, 한-필리핀 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세부)
- '19.11.25,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시 상품 조기성과 패키지 합의
- '20.1.29~31 한-필리핀 FTA 제5차 공식협상 개최(마닐라)
- '20.2월~'21.10월 수석대표회의 및 분과별 회기간회의 개최(화상)
  - \*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화상회의 개최로 협상 진행
- '21.10.26 한-필 통상장관 간 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 선언(화상)
  - \* (우리측)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필측)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통상산업부 장관

## 참고 2

## 한-필리핀 교역현황

### □ 교역 현황

- 양국간 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코로나 이전 '18년도 156억 불까지 도달했으나, '20년 코로나 영향으로 15%교역량 감소

#### < 연도별 한-필리핀 교역 현황 >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8,211 (11.9)	8,783 (7.0)	10,032 (14.2)	8,318 (△17.1)	7,278 (△12.5)	10,594 (45.5)	12,037 (13.6)	8,363 (△30.5)	7,127 (△14.8)
수입	3,284 (△8.1)	3,706 (12.9)	3,331 (△10.1)	3,252 (△2.4)	3,229 (△0.7)	3,702 (14.7)	3,569 (△3.6)	3,656 (2.4)	3,086 (△15.6)
무역수지	4,927	5,077	6,701	5,066	4,049	6,892	8,468	4,707	4,041
<b>총교역액</b>	<b>11,495</b>	<b>12,489</b>	<b>13,363</b>	<b>11,570</b>	<b>10,507</b>	<b>14,296</b>	<b>15,606</b>	<b>12,019</b>	<b>10,212</b>

※ 필리핀은 한국의 수출 12위, 수입 27위, 교역18위 대상국 ('20년 기준)  
한국은 필리핀의 수출 7위, 수입 4위, 교역 5위 대상국 ('20년 기준)

- 한국의 對필리핀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석유제품·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아웃소싱후 재수입 반도체·과실류·전동기 등임

#### < 2020년 한-필리핀 주요 수출입품목 >

(MTI 4단위 / 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집적회로반도체	2,742	38.5	집적회로반도체	971	31.5
휘발유	417	5.9	과실류	260	8.4
경유	312	4.3	전동기	213	6.9
동조가공품	201	2.8	동괴및스크랩	168	5.4
선박	178	2.5	제어용케이블	168	5.4
<b>5대 품목 총계</b>	<b>3,850</b>	<b>54.0</b>	<b>5대 품목 총계</b>	<b>1,780</b>	<b>57.6</b>

### □ 투자 현황

- '20년 기준, 한국의 對필리핀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60억불
- 필리핀의 對韓 투자 누계액은 약 9억불

#### < 연도별 한-필리핀 투자 현황 >

(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출처 : 수출입은행, 산업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누계
한→필	964	474	125	216	183	587	215	254	139	6,024
필→한	0.62	102	5.87	187	3.77	511	0.88	0.95	9.4	974

### 참고3

## 한-캄보디아 FTA 추진경과

- '19.3월, 한-캄 정상회담(프놈펜)시 훈센 총리가 양자 FTA 제안
- '19.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캄보디아 통상장관간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
  - \* 수행기관 : (우리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캄보디아측) 통상부
- '20.1~5월,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진행
  - ※ 국장급 실무협의 병행
- '20.6.12, 공청회 개최
- '20.6.15, 「한-캄보디아 FTA 체결계획」 수립(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 '20.6.29, 「한-캄보디아 FTA 체결계획」 국회 산자위 위원회 보고
  - ※ 캄측은 자국 국내절차 완료했음을 통보(6.29)
- '20.7.9, 한-캄 통상장관 간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선언(화상)
  - \* (우리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캄측) 뻘 소라삭(PAN Sorasak) 상무부 장관
- '20.7.30-31 한-캄보디아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화상)
- '20.8.31-9.2 한-캄보디아 F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화상)
- '20.10.6-8 한-캄보디아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화상)
- '20.11.18~20 한-캄보디아 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화상)
- '21.2.3 한-캄보디아 FTA 타결선언(화상)
- '21.10.26 한-캄보디아 FTA 서명(화상)



## 참고4

## 한-캄보디아 교역·투자 현황

### □ 교역 현황

- 양국간 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코로나 이전 '19년도 10억불 까지 도달했으나, '20년 코로나 영향으로 14.3% 교역량 감소

#### < 연도별 한-캄보디아 교역 현황 >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593 (31.6)	615 (3.6)	654 (6.5)	653 (△0.2)	573 (△12.2)	604 (5.4)	660 (9.4)	697 (5.5)	567 (△18.6)
수입	126 (44.7)	136 (7.9)	194 (42.3)	216 (11.6)	239 (10.6)	261 (9.0)	314 (20.3)	336 (6.8)	318 (△5.4)
무역수지	467	479	460	437	334	343	346	361	249
<b>총교역액</b>	<b>719</b>	<b>1) 751</b>	<b>2) 848</b>	<b>869</b>	<b>812</b>	<b>865</b>	<b>974</b>	<b>1,033</b>	<b>885</b>

※ 캄보디아는 한국의 60위 수출대상국, 64위 수입대상국 ('20년 기준)

- 한국의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은 의류·신발 원재료(편직물 등), 화물자동차, 음료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의류·신발 제품 등임

#### < 2020년 한-캄보디아 주요 수출입품목 >

(MTI 4단위 / 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음료	74	13	편직의류	121	38
편직물	67	11	신발	48	15
화물자동차	62	10	직물제의류	48	15
알루미늄조가공품	47	8.2	제어용케이블	43	13.5
섬유제품	37	6.5	가방	21	6.6
<b>총수출액</b>	<b>567</b>		<b>총수입액</b>	<b>318</b>	

### □ 투자 현황

- '20년 기준, 한국의 對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70억불
- 캄보디아의 對韓 투자 누계액은 0.37억불

#### < 연도별 한-캄보디아 투자 현황 >

(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출처 : 수출입은행, 산업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누계
한→캄	140	139	90	176	397	243	436	182	985	7,001
캄→한	0.4	12.3	20.1	0.3	0.8	0.3	0.3	0.8	0	37.82